

# 미술 활동이 가출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 Art Program Effect on Self-esteem, Depression of Runaway Youths

변상해, 정의정, 오수생, 신종수  
서울벤처정보대학원 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Byun Sang Hae(jm9004@suv.ac.kr), Jung Eui Jung(nayagongju@hanmail.net),  
Oh Soo Saing(oss0810@hanmail.net), Shin Jhong Shu(sjs521@hanmail.net)

### 요약

본 연구는 미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가출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G 지역에 위치한 청소년 쉼터에서 보호중인 가출청소년 6명은 실험집단으로 6명은 통제집단으로 구분,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로는 자아존중감 척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oopersmith가 개발한 도구와, 우울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Beck이 제작한 우울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연구목적에 따라 분석하기 위해 t-Test 등의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였고, 실험집단의 가출청소년들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후를 비교했을 때, 실시 후에 우울 점수가 유의미하게 감소되었고, 자아존중감의 점수 또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는 결론을 얻었다.

■ 중심어 : | 가출청소년 | 자아존중감 | 우울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certain the effect of Art program for runaway Youths Self-esteem and Depression. Sstaying at the youth shelter located in Gwang ju. The subjects were assinged to two groups, an experimental group and a control group evenly. Coopersmith Self-Esteem Inventory was used measure the level of self-esteem, Beck Depression Inventory for depressio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The art program showed a positive effect on increasing the level of self-esteem and decreasing the level of depression of experimental group In comparison with those of control group.

■ keyword : | Runaway Youths | Self-esteem | Depression |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통계청이 발표한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04년 가출청소년은 16,894명으로 2003년에 비해 26.3%가 증가

했다고 한다[1]. 하지만 이러한 신고통계에 포함될 수 없거나 포함되지 않는 사례를 고려한다면 청소년 가출의 수는 매년 10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국가출청소년 실태조사연구'에 의하면 가출청소년은 비가출청소년에 비해 흡연, 음주, 약물남용, 남녀

혼숙 및 성관계, 강도, 절도, 성폭행 등의 문제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2], 위와 같은 청소년의 비행에는 낮은 자아존중감[3] 우울성향 및 약물남용에[4]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여러 학자들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Revinson 등은[5] 가출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낮은 자아개념을 갖고 있으며, 방어적이라고 언급했고, Rothman[6] 역시 가출청소년들은 비가출 청소년들에 비해 낮은 자존감과 함께 우울을 포함한 자기 파괴적 행동의 경향이 있음을 보고했다.

이러한 가출청소년들을 위해 센터 및 보고기관에서는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은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내용이 미비한 수준이다. 언급한 바에서 알 수 있듯이 가출청소년은 정서적인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으며, 특히 낮은 자아존중감과 높은 우울성향이 문제이다. 가출청소년들이 자신의 처한 환경과 상황을 적절하게 직시하고, 어려운 정서적 부분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가출청소년들이 비교적 저항감을 느끼지 않고, 그들의 정서를 잘 반영해줄 수 있는 표현매체가 필요한바 본 연구에서는 그 도구로 미술을 활용하였다. 다양한 미술에의 참여는 전문적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적고, 혼자만의 작업을 할 수 있어 가출청소년에게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다. 가출청소년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실태와 대안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양 또한 많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가출청소년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아주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가출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지금까지 많이 접해왔으며,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미술을 통하여 가출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 및 우울감을 향상하여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활용과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기존 연구가 미술만을 활용한 단순한 미술활동 뿐이었다면 본 프로그램은 미술활동만이 아닌 다양한 촉진기법-역할극, 게임, 상담-을 활용하여 참가자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체사례를 요

약한 질적보고를 통해 연구 진행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 2. 연구가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연구가설 1. 미술 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 청소년이 통제집단 청소년보다 자아존중감이 향상될 것이다.

연구가설 2. 미술 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 청소년이 통제집단 청소년보다 우울이 감소될 것이다.

## 3. 연구 제한점

첫째, 연구대상이 G시에 소재한 한 개의 센터 거주하는 일부 청소년들에 국한된 관계로 연구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제한이 있다.

둘째, 연구결과에의 도출을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 외 다른 참여자들의 참여를 통제하고, 본 프로그램 참가자가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의 통제를 시도하였으나,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모든 환경적 요인들을 통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셋째, 측정하는 과정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적 견해가 완전히 배제되었음을 확신할 수 없다.

넷째, 인간의 복합적인 정신적 특성인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의 변화에 대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의 연구에 머물러 연구결과에 대한 보완 및 재검토가 필요하다.

## 4. 용어의정의

### 4.1 가출청소년

부모등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집을 떠나 생활하거나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가출 후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 4.2 자아존중감

자기를 존중하고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으로 생각하

는 정도로 규정한다.

### 4.3 우울

우울은 인간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상태로 슬프고 불행한 감정등의 부정적 상태를 말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선행연구

#### 1.1 가출청소년 자아존중감,우울과 미술 선행연구

박정아(2008)[7]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출청소년들에게 위기개입 중심으로 미술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강은숙(2006)[8]은 가출청소년에게 rebt에 근거한 미술치료를 활용하여 분노조절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음을 보고하였다. 이주영(2006)[9]은 서울시에 소재한 K 청소년 쉼터 거주 9-19세까지의 남자청소년 13명을 대상으로 주 2회씩 총 22회기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미술이 청소년들의 자아성장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었음을 보고하였고, 김은아(2005)[10]는 집의 이미지를 통한 자아통찰에 관한 단일 사례연구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홍용선(2004)[11],김현주(2004)[12]는 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 중 BDI 우울증 검사를 실시하여 16-23점 이상의 우울 성향을 가진 남자청소년 3명이 대상이다. 이들을 상대로 주1회 총 15회기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미술이 우울감소에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하였고, 김선관(2001)[13]은 가출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술이 자아존중감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하였다.

#### 2.2 가출청소년 자아존중감, 우울과 기타활동 선행연구

이선화(2006)[14]은 가출청소년 쉼터에 입소한 10대 여자가출청소년 12명을 대상으로 무용/동작치료를 적용한 결과, 공격성에 유의미한 감소를 가져왔으며, 자기표현에 유의미한 향상을 가져왔다는 긍정적인 결론이 도출되었음을 보고했고, 류은수(2006)[15]는 가출청소년

년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여자청소년 16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아존중감, 우울, 분노, 불안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김선미(2005)[16]는 안양시 H 청소년 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악활동을 적용한 후 이들의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고, 김민정(2003)[17]은 2개 가출청소년 쉼터에 있는 남녀 청소년으로 실험집단은 11명, 통제집단은 8명으로 구성하여 계슈탈트 집단 치료를 실시하였다. 그결과 자기개념, 정서적 안정, 대인신뢰감에 긍정적 효과를 미쳤음을 보고하였다.

이지아(2005)[18]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음악요법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정서적 기능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고, 유한규(2003)[19]는 서울 N아동상담소에 일시보호된 가출청소년 15명을 실험집단 7명과 통제집단 8명으로 구분하여 총 9회기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그 결과 실험집단의 청소년들이 공격성, 비행행동, 협동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고하였다. 최정은(2001)[20]은 가출소녀를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실시하여 자아존중감과 관계를 연구 하였는데, 긍정적 결과가 나왔음을 밝히고 있다.

#### 2.3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우울 선행연구

김경희(2005)[21]는 인터넷 중독 증상을 보이는 4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 1회 총 18회기의 집단미술 활동을 실시하여 자아존중감의 향상과 우울의 감소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였고, 장진숙(2005)[22]은 D시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한 학급학생중 높은 우울점수를 보이는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집단 7명, 통제집단 7명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김정은(2003)[23]은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보이는 15명의 남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8주간에 걸쳐 음악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무작위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분류하였다. 결론적으로 자아존중감의 향상과 우울의 감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김정숙(2003)[24]은 휴대폰을 소지하는 수도권 남녀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휴대폰 중독검사를 실시하여 과다사용 집단에 98명, 비과다사용 집단에 98명을 분류하였다. 조사결과 휴대폰을 과다사용하는 집단이 우울과 충

동성의 성향이 높았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G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청소년 12명을 선정하여, 6명은 실험집단으로, 6명은 통제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실험이 이루어진 쉼터에는 연구당시 3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거주하였는데, 외부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친구관계의 청소년들을 제외하고, 프로그램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미술을 선호하는 청소년들을 선별해서 총 12명의 청소년이 선정되었다. 실험집단에게는 주 1회 총 8회기의 미술 활동을 진행하였다.

#### 2. 연구설계

본 연구는 미술 활동이 가출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로서 연구설계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설계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전	개입	사후	사전	개입	사후
자아존중감 /우울 측정	미술	자아존중감 /우울 측정	자아존중감 /우울 측정	x	자아존중감 /우울 측정

#### 3. 연구도구

##### 3.1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아존중감 척도는 Coopersmith (1967)[25]의 자아존중감항목표 SEI를 바탕으로 최보가와 전귀연(1993)[26]이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체적 자아', '사회적 자아', '가정적 자아', '학교자아'의 4개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있고, 총 32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정미란(2006)[27]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88이었고, 김장문(2008)[28]의 연구에서는 .67의 내적합치도를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6이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존중감 척도의 문항구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자아존중감 검사의 하위영역별 문항 구성

하위영역	문항수
총체적 자아	6
사회적 자아	9
가정적 자아	9
학교자아	8

##### 3.2 우울

우울감은 Beck(1967)[29]이 제작하고 이영호와 송종용(1991)[30]이 번안한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사용하였다. BDI는 우울 수준을 재는 자기보고형 질문지이다. 이 척도는우울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 영역을 포함하는 21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Beck 이 제시한 BDI 점수 분류기준은 0-9점까지는 우울하지 않은 상태, 10-15점은 가벼운 우울, 16-23점은 중간 우울상태, 24-63점은 심한 우울상태라고 하였다(송현중, 1993[31] 재인용).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71이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우울증 척도의 문항구성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우울증 검사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하위영역	문항내용	문항수
정서적	슬픔, 자살, 울음, 짜증	4
인지적	실패감, 죄책감, 벌받음, 실망감, 내탓, 결정	6
동기적	낙심, 일상생활, 타인관심, 내모습,내일	5
생리적	수면, 피곤, 식욕, 체중, 건강, 성(sex)	6

#### 4. 자료분석

측정된 자료는 SPSS/PC+를 활용하였고, 프로그램 실시전후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IV. 사례개요

#### 1. 개요

본 사례는 G시에 위치한 청소년 보호시설에 일시 거주하는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2007년 10월부터 12월 까지 총 8회기에 걸쳐 주 1회 90분씩 미술 활동을 개입한 임상사례를 바탕으로 하였다. III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참여 청소년들은 친구관계의 배제와 미술활동을 선호하는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 2. 개입과정

### 2.1 프로그램 진행과정

#### (1) 사전준비

프로그램 일정 및 준비물을 점검하고, 프로그램 중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교환한다.

#### (2) 프로그램 진행형태

1회기 프로그램은 90분으로 도입 프로그램 15분, 본 프로그램 60분, 마무리 프로그램 14분으로 구성하였다.

#### (3) 사후 평가회의

매회 프로그램 종료 후 실시된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성의 여부와 참여자의 반응, 그리고 진행에 대해 평가하였다.

### 2.2 프로그램 내용

각 회기별 프로그램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회기별 내용

회기	도입	본프로그램	마무리
1	인사하기/ 건강체조/ OT	이름 그리기	느낌나누기 다음회기 설명
2	인사하기/ 건강체조/ 프로그램 설명	신문지 작업	느낌나누기 다음회기 설명
3	인사하기/ 건강체조/ 프로그램 설명	만다라	느낌나누기 다음회기 설명
4	인사하기/ 건강체조/ 프로그램 설명	행복했던 감정	느낌나누기 다음회기 설명
5	인사하기/ 건강체조/ 프로그램 설명	내가 아는 나 남이 아는 나	느낌나누기 다음회기 설명
6	인사하기/ 건강체조/ 프로그램 설명	나의 변신	느낌나누기 다음회기 설명

7	인사하기/ 건강체조/ 프로그램 설명	판도라의 상자	느낌나누기 다음회기 설명
8	인사하기/ 건강체조/ 프로그램 설명	나에게 주는 상장	느낌나누기 다음회기 설명

참여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의 참여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프로그램의 구성은 매회 너무 상이한 내용이 아닌 도입과 마무리의 활동은 같은 구성으로 진행하였고, 본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어 진행하였다.

1회기의 이름그리기 활동은 참여청소년들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동물을 그림으로 표현한 후 그 이유를 함께 나누었고, 2회기의 신문지 작업에서는 자신의 모습에서 버리고 싶거나 부정하고 싶은 모습을 신문에 표현하게 한 후 신문을 찢거나 버림으로써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에서 벗어나는 기분을 느끼게 하고자 하였으며, 3회기에서는 만다라 작업을 통하여 현재까지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4회기에서는 3회기의 만다라의 작업과 병행하여 만다라 속에 자신의 행복했던 순간을 표현하므로 한층 더 깊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였으며, 5회기와 6회기에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과 그룹원과 지도자에 의한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을 비교하여 자신에 대한 가치감을 느끼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모습들이 자신뿐만이 아닌 다른 구성원에게 같은 고민임을 알게 하였으며, '정말 그래요'라는 칭찬폭탄릴레이 게임을 병행하여 자신에게 감춰진 긍정적인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7회기 판도라의 상자에서는 한쌍으로 이루어진 겪어봤을 불행한 상황과 행복한 상황들에 대한 사례를 담아두고, 자신이 뽑은 상황들에 대해서 구성원들과 역할극을 하였다. 7회기에서는 활동의 특성상 90분이던 활동시간이 2시간 10분 동안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8회기에서는 참여청소년 각자가 자신의 상장에 대한 글을 써서 자신에게 수여하게 하였다.

## V. 연구결과

### 1. 집단간 동질성 검증

미술 활동에 참가한 두 집단의 동질성 검증을 한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집단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동질성 검증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실험집단	6	50.91	11.03	.575
통제집단	6	48.12	11.35	

## 2. 미술과 자아존중감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집단과 참가하지 않은 통제 집단간의 전체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점수를 비교한 것은 [표 6]과 같다.

표 6. 집단간 전체 자아존중감 사전 사후 비교

집단	n	사전 평균	표준 편차	사후 평균	표준 편차	t
실험집단	6	76.37	10.03	83.5	8.39	2.62*
통제집단	6	71.67	10.36	70.37	11.91	

\* p<.05

[표 6]에서와 같이 실험집단의 평균은 프로그램 실시 전보다 실시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고 통제집단은 오히려 프로그램 실시 후 평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미술이 실험집단 가출청소년의 전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2.1 미술과 일반적 자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참가하지 않은 통제 집단간의 일반적 자아의 사전사후를 비교한 것은 [표 7]과 같다

표 7. 집단간 일반적 자아 사전사후 비교

집단	n	사전 평균	표준 편차	사후 평균	표준 편차	t
실험집단	6	40.13	6.53	44.56	4.29	1.09
통제집단	6	37.96	5.25	37.65	5.41	

\*\*p<.01

[표 7]에서와 같이 실험집단의 평균은 프로그램 실시 전보다 실시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고 통제집단은 오히려 프로그램 실시 후 평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미술 활동이 실험집단 가출청소년의 일반적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2.2 미술과 사회적 자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참가하지 않은 통제 집단간의 사회적 자아의 사전사후를 비교한 것은 [표 8]과 같다

표 8. 집단간 사회적 자아 사전사후 비교

집단	n	사전 평균	표준 편차	사후 평균	표준 편차	t
실험집단	6	13.17	2.71	13.77	1.77	.53
통제집단	6	12.83	3.25	12.43	2.79	

\*\*p<.01

[표 8]에서와 같이 실험집단의 평균은 프로그램 실시 전보다 실시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고 통제집단은 오히려 프로그램 실시 후 평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2.3 미술과 가정적 자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참가하지 않은 통제 집단간의 가정적 자아의 사전사후를 비교한 것은 [표 9]와 같다.

표 9. 집단간 가정적 자아 사전사후 비교

집단	n	사전 평균	표준 편차	사후 평균	표준 편차	t
실험집단	6	11.70	3.97	13.27	2.40	.83
통제집단	6	10.70	2.33	8.70	3.44	

\*\*p<.01

[표 9]에서와 같이 실험집단의 평균은 프로그램 실시 전보다 실시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고 통제집단은 오히려 프로그램 실시 후 평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미술 활동이 실험집단 가출청소년의 가정적 자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2.4 미술과 학교자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참가하지 않은 통제 집단간의 가정적 자아의 사전사후를 비교한 것은 [표 10]과 같다

표 10. 집단간 학교 자아 사전사후 비교

집단	n	사전 평균	표준 편차	사후 평균	표준 편차	t
실험집단	6	11.00	2.01	11.89	2.49	.50
통제집단	6	10.30	2.12	9.16	2.60	

\*\*p<.01

[표 10]에서와 같이 실험집단의 평균은 프로그램 실시전보다 실시 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고 통제집단은 오히려 프로그램 실시 후 평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미술 활동이 실험집단 가출청소년의 학교 자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위에서와 같이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 3. 미술과 우울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술 활동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우울에 대한 사전사후 점수를 비교하였으며, 결과는 [표 11]와 같다.

표 11. 집단간 우울 사전사후 비교

집단	n	사전 평균	표준 편차	사후 평균	표준 편차	t
실험집단	6	38.25	9.92	26.25	3.81	.50
통제집단	6	31.70	9.20	32.20	7.15	

\*\*p<.01

[표 11]에서와 같이 통제집단의 우울점수는 0.8점 증진되었으나, 실험집단의 점수는 12.0점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미술 활동이 실험집단의 가출청소년

에게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4. 각 회기별 사례요약

#### 4.1 1회기

참가자들은 자신의 모습을 호랑이, 새, 말, 강아지 등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쉽터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구분되어졌는데, 쉽터에 거주기간이 길수록 자유를 그리워하는 새나 말 등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이 회기에서는 누가 어떤 동물을 그렸는지 밝히지 않았고, 그림을 펼쳐놓은채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프로그램 말미에 2명의 참가자가 ‘난 치와와(강아지)를 그렸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 맞는 것 같다’, ‘난 호랑이를 그렸는데, 다른 맹수들도 같이 그리고 싶었다’ 등 자신이 무엇을 그렸으며, 왜 그렸는지에 대해 알 것 같다는 느낌을 표현하였다.

#### 4.2 2회기

버릴 수 있는 신문에 기록한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의 공개여부는 자신의 결정에 맡겼다. 그리고 기록하는 곳이 양식이 정해진 보고서가 아닌 신문지라는 사실에 참가자들은 편안함을 느낀다고 했으며, 6명의 참가자 중 4명이 ‘더럽혀진, 거짓말, 가난’, ‘못생김, 잘하는게 없음’, ‘거짓말, 집이 가난함, 죄책감이 별로 없음’등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구성원들과 나누었다.

#### 4.3 3, 4회기

3회기의 만다라 작업에서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표현했고, 4회기의 만다라 작업에서는 그 중에서도 자신이 행복했던 순간들을 표현하게 하였다. 대체적으로 만다라의 모습이 사선의 모양이 많았고, 색깔의 주로 검정, 파랑, 보라색등이 사용되었다. 4회기의 작업에서는 연두색이나 회색등의 색깔이 사용되었고, 3회기보다 더 많은 개수의 만다라 용지가 사용되었다. 일부 참가자들은 만다라 종이를 많이 사용하는 다른 참가자들을 보며 연구자에게 ‘종이를 많이 사용해야만 하나요?’라고 묻기도 하였고, 연구자는 프로그램의 진행에 정답은 없다고 말해주었다.

#### 4.4 5,6회기

이 회기에서의 참가자들은 의무적으로 자신에 대한 사랑을 한 개 이상 구성원들에게 말할 해야 했는데, '난 몸이 건강해요', '난 컴퓨터에 들어온 후 30일째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아직 마시고 싶은 생각이 안들어요',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요', '키가 커요', '난 힘이 센 남자예요' 등의 참가자의 자신에 대한 칭찬의 말을 들은 다른 구성원들은 과하다 싶을 정도의 공감을 표시해야했다. 구성원들이 스스로 멈출때까지 계속 이어졌으며, 나중에 구성원들이 연구자에게도 함께 참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참가자는 자신에겐 칭찬할 게 없어 할말이 없다고 했고, 연구자는 일단 자신에 대해 겸손한 태도가 칭찬받을만하다고 말해주었다.

#### 4.5 7회기

혹여 자신이 겪지 못한 상황이 선택되었을때, 실행여부는 참가자들에게 결정하도록 했다. 만약 참가자들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다시 다른 상황을 선택할수 있다고 말했지만, 1명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선택한 상황을 바꾸지 않았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불행한 상황보다 행복한 상황의 역할을 더 선호한다고 말하면서도 두 역할 모두에 참여하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처음 참가자들이 다른 참가자들의 시연에 자꾸 개입하려고 해서 그 부분을 조정해 주었다.

#### 4.6 8회기

8회기에서는 지금까지 활동에 대한 피드백과 자신에 게 상장을 수여했다. 참가자들은 활동 참여인원이 소수이었던 것에는 만족을 표시했으나, 프로그램이 8회기로 짧았던 것에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마음을 열어놓아야 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짧은 기간에 다른 구성원들에게 보여주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끝으로 자신이 자신에게 주는 상장을 자신이 도안하고 문구를 만드는 작업에 참가자들은 처음엔 난색을 표하기도 했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상장을 만들기예 최선을 다했다. 상장의 문구의 예를 들어보면, "프로그램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참가해준 고맙고 이쁜 OO아, 이 세상에 하나뿐인 귀한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너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고 정말 귀하게 인생을 살아줬으면 좋겠다.", "분명히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인양 많은 사람을 힘들고 하고 내 자신 또한 학대했던 OO이가 이제는 조금만 더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OO이가 된것 같아. OO아, 고마워"등으로 자신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 VI.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는 미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가출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가출청소년의 재활 및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G 지역에 위치한 청소년 쉼터에서 보호중인 가출청소년 12명을 선정하여 6명은 실험집단으로 6명은 통제집단으로 구분, 구성하였다.

또한 대상 청소년의 현재 자아존중감과 우울수준을 파악한 후 미술 활동을 계획하여, 실험집단에게 주 1회 2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대한 변화를 비교하였다. 연구도구로는 자아존중감 척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oopersmith(1967)의 자아존중감 항목표 SEI를 바탕으로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고, 우울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Beck(1967)[27]이 제작하고 이영호와 송중용(1991)이 번안한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연구목적에 따라 분석하기위해 T-TEST등의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따른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집단의 가출청소년들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기전후를 비교했을 때, 실시 후에 우울 점수가 유의미하게 감소되었다. 그러나 통제집단의 가출청소년들은 실시전에 비해 평균점수가 증가를 보였지만,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둘째, 실험집단의 가출청소년들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기전후를 비교했을 때, 실시 후에 자아존중감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통제집단의 가출청소년들은 실시전에 비해 평균점수가 증가를 보였지만,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 2. 제언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시도한 프로그램은 보호시설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청소년이었던 까닭에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쉼터의 특성상 부득이한 상황이었지만, 추후관리를 통한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여부 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또한 본 연구는 전국의 가출청소년이 아닌 G지역의 쉼터에 머무르는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대상의 다양성과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는데, 좀더 다양한 상황과 연령의 가출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면 또 다른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적 어려움으로 8회기의 단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외생변수들의 통제가 어려웠으므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개입하여 가출청소년의 문제와 개입의 효과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하여 차후 가출청소년을 위한 대안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본문에서도 밝혔듯이 미술, 게임, 역할극 등 미술이외의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전체적인 결론으로도 알 수 있듯 이러한 활동들이 본 연구의 목적인 가출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단 회기별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각 활동들의 영향력의 정도를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참가자들이 여러 활동 중 미술관련 활동에 더 활발한 역동과 적극성을 보였음을 미루어보아 다른 활동보다 미술관련 활동이 더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한다. 이에 각 활동들의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별적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가출청소년을 위한 차후 대안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 참고 문헌

- [1] 남궁정, "여성가출청소년을 위한 진로탐색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2] 조학래, 침례신학대학교 자원봉사길라잡이,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02.
- [3] 이혜연, 특별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지침서 개발,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 [4] 변상해, 양해술, "청소년 약물남용의원인과 그 대책에 관한연구",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제6호, pp.45-65, 2006.
- [5] B. M. Levenson and H. Mezei, "Self-concept and idealself concept of runaway youth," counseling implication: Psychologica report, Vol.23, No.3, 1970.
- [6] N. J. Rothman, "Runaway and homeless youth: strenghtening services to family and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78, 1985.
- [7] 박정아, "가출청소년의 집단미술치료 효과성에 관한 연구:보호시설의 위기개입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8] 강은숙, "rebt에 근거한 미술치료가 가출청소년의 분노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9] 이주영, "자기성장을 목적으로 한 쉼터 거주 청소년의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10] 김은아, "가출청소년 미술치료 단일사례연구: '집'의 이미지를 통한 자아통찰",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11] 홍용선, "수채화 매체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가 가출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12] 김현주, "미술치료가 가출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13] 김선관, "가출소녀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 미술치료 사례연구", 광주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01.

[14] 이선화, “무용/동작치료가 여자 가출청소년의 공격성과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5] 류은수, “인지행동적 집단치료가 가출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 분노에 미치는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6] 김선미, “가출청소년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음악치료 활동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7] 김민정, “계슈탈트 집단치료가 가출청소년의 자기개념,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8] 이지아, “음악치료를 통한 청소년 교육에 관한 문헌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9] 유한규, “가출청소년을 위한 집단치료놀이프로그램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20] 최정은, “해결중심 집단상담이 가출 소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21] 김경희, “집단미술치료가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 및 우울감 극복에 미치는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22] 장진숙, “집단미술치료가 여고생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23] 김정은, “집단음악활동이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우울감 감소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24] 김정숙, “휴대폰 과다사용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우울, 충동성”,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25] S. Coopersmith,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1967.

[26] 최보가, 전귀연, “자아존중감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93호, pp.41-54, 1993.

[27] 정미란,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06.

[28] 김장문 “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가출 및 보호관찰 청소년을 중심으로”,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논문, 2008.

[29] A. Beck,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Co, 1967.

[30] 이영호, 송종용, “BDI,SDS,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제10권, 제1호, pp.98-113, 1991.

[31] 송현중,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귀인모형의 인과적 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저자 소개

변상해(Byun Sang Hae)

정회원



- 2006년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사회복지상담학과)
- 2007년 :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상담학박사(가족상담 전공)
- 2006년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경영학박사(사회복지상담전공)

<관심분야> : 가족상담, 다문화상담, 인사조직

정의정(Jung Eui Jung)

정회원



- 2004년 :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 2007년 : 목포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체육학박사(여가레크리에이션전공)
- 2008년 : 송원대학교 겸임교수

<관심분야> : 여가 및 레저스포츠, 문화콘텐츠

오 수 생(Oh Soo Saing)

정회원



- 2003년 : 칼빈신학대학교 신학사
- 2006년 : 칼빈신학대학교 목회학 석사
- 2009년 :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사회복지전공)

<관심분야> : 청소년, 문화콘텐츠

신 종 수(Shin Jhong Shu)

정회원



- 2001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불문학사
- 2006년 : 백석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
- 2009년 :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가족상담학전공)

<관심분야> : 교육콘텐츠, 가족상담